

경의선 화물열차 56년만에 '기적'

문산~봉동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 운송... 남북 경협 활짝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나르는 경의선 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6면)

한국전쟁으로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 여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로, 지난 5월 시험 운행을 실시한 지 7개월 만이다.

반세기 이상 끊어져 있던 남북 간 철길이 이날 이어져 화물열차가 개통됨으로써 앞으로 철도를 이용한 남북

경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화물열차(S7303호, 기관사 신장철)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문산역을 출발,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OIC)에서 간단한 수속과 승무 신고를 마친 뒤 8시 25분께 도라산역을 떠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8시 40분께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도라산역 출발에 앞서 신장철 기관사 등 승무원 3명은 이철 코레일 사장에게 구축을 축진해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

한반도기를 흔들며 화물열차를 환송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 시 판문역 앞 광장에서 양측 관계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산과 봉동 간 화물 열차 운행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남북 철도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발전하고 있는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라며 “한반도 통합 물류체계 구축을 촉진해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

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회화단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 참사는 “화물열차들이 오고 가게 된 것은 통일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의의있는 사변”이라고 말했다.

화물열차는 기관차 1량과 컨테이너 화차 10량, 차장차(열차 차장 등 실무인력 탑승) 1량 등 모두 12량으로 구성됐으며 판문역에서 기념행사 뒤, 열차에 컨테이너 화물을 싣는 화물상차식을 갖고 오전 11시 40분께 판문역을 출발해 남측으로 떠났다.

이날은 기념행사를 위해 일정이 다소 변경됐다.

/연합뉴스

진 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한 공동 협신도시로 이전할 11개 기관과 여수로 이전이 확정된 해양경찰학교에 대한 이전계획은 내년 초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14만9천 372㎡의 부지에 3천973억원의 공

사를 투입, 신청사(건축면적 8만555㎡)를 건립해 1천425명의 전 직원이 이주한다.

28개 기관은 수도권 한류 없이 전부 이전하며 부지 및 시설 규모는 세종시 기준을 준용해 1인당 56.53㎡를 상한으로 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산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안공항~후쿠오카행 전세기 뜯다

내년 1월 11~20일 총 5회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일본 후쿠오카행 전세기 운행이 확정됐다. 호남여행사가 기획한 무안공항~후쿠오카 전세기는 총 5회 왕복 운행 예정으로 오는 2008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된다.

일본 전세기 상품은 주말을 이용한 2박3일 가족동반 온천여행

코스와 3박4일 하우스텐보스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다.

주요 방문지는 인구 130만명의 큐슈 관문인 후쿠오카, 일본의 3대 온천휴양지인 베부, 세계최대의 복식카르데라 분화구 아소산 일대와 온천수, 구모모토성,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인 우젠키구, 원자폭탄 허지 나가사키, 유럽형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온/오프라인

- 김종우



쇼를 해라! 쇼를 해!

45세 남자 평균 33년 더 산다

여자는 39년... 기대수명 男 76세·女 82세

45세인 남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평균시간은 32.6년이고 45세 여자는 38.6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태어난 남자 아이가 각종에 걸려 숨길 확률은 27.6%에 달했으며, 여자 아이의 경우 22.3%가 순환기계 질환으로 사망할 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1일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확률 등을 분석한 '2006년 생명표 작성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한 남자의 평균 수명(기대수명)은 75.74세, 여자의 기대

수명은 82.36세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0.60년, 0.48년 늘었다.

기대수명은 10년 전보다 남자는 5.66년, 여자는 4.59년 증가했으며 이는 45~64세 남자와 65세 이상 여자의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현재 45세 남자가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인 기대여명은 32.6년이며 45세 여자는 38.6년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80세 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남자의 경우 45.2%로 절반에 못 미친 반면 여자는 68.9%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와! '아줌마의 힘'

30, 40대 여성 근력 50대 장년보다 앞서

연령별로 여성의 근력을 측정한 결과 30대와 40대의 팔, 다리 근력이 50대 이상 장년은 물론, 20대 여성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의 근력이 가장 뛰었지만 최근의 급격한 체격 향상에도 불구하고 잘 한 가마니(80kg)를 들 수 있는 남성은 10명 중 3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준부 기술표준원은 11

일 '사이즈 코리아 2007' 사업 결과 발표회를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인의 근력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근력으로 측정된 팔 근력에서 남성은 20대에서 425N(뉴트)으로 가장 썼고 여성의 약력은 40대가 250N으로 가장 강했다.

/연합뉴스

한전 등 6개 기관 2012년까지 이전 완료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계획 건교부 심의 통과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옮겨 올 17개 공공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PS, 한전KDN, 한국전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공사 등 6개 기관이 당초 계획대로는 2012년까지 이전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10개 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이날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 한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선도기관으로 분류돼 다른 기관보다 2년 앞선 2010년까지 이전 계획이었던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

도로공사의 이전을 제외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1년까지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심의를 통해 이전 계획이 확정된 기관은 이전 대상 총 178개 기관 중 자체적으로

마치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 빠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수박람회 집행위 만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회는 11일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2차 집행위원회의를 갖고 여수엑스포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 등을 받은 뒤 박준영 전남지사 주최의 만찬을 가졌다. 원쪽부터 하재호 대주그룹 회장, 최상우 남회도건 회장, 황금주 동광건설 회장, 박지사, 노진영 지방유치위원장.

전남 건설산업 활성화

도의회 조례안 만들어

전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11일 제22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송대수) 소속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주량 증대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자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했다.

/정후경기자 who@kwangju.co.kr

전남도, 서해 기름띠 제거 동참

도청 직원들 복구활동... 방제물품 지원도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청 직원들이 12일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충남 태안을 방문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방제작업을 돋는다.

도청 직원들은 이날 유출된 원유로 오염된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흡착포, 라면, 생수 등 1천 2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전달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방제활동에는 전남도청 직원과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관계자, 해수부, 여수

시 엑스포 담당 공무원 등 130여명도 동참한다. 2012여수엑스포 유치 관계자들이 함께 복구지원에 나선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살아가는 바다' 솔루션은 연안의 취지에 맞춰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한 뜻이 끊임 있다.

한편 전남도는 사고발생 즉시 전국 최초로 도소방공무원 45명과 방제장비 9종 581점 등을 현지에 급파하여 피해확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T.010-9776-3630, 011-62-5197

▲ 광주미래로신도시 산천 응봉 12월 19일(수) 08시~10시

동산 12월 16일(일) 08시~10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체육관광부)

※ 다음주 토요일: 대로드 신천

화재예방교육(예약 보험 가능)

T.011-645-3371, 011-635-9299

▲ 광주우보회 구애(국성) 겸

주수 12월 16일(일) 08시~10시

주수 12월 22일(일) 08시~10시

▲ 광주국유산의회 전남 담양

주수 12월 16일(일) 08시~10시

▲ 광주국유산의회 전남 담양

</div